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희석 목사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 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1월 12일(월) 기도 담당 : 이재원 집사

예배를 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송 .....	38장
기도 .....	조병훈 집사
성경봉독 .....	시편 102편 1~2, 17~22, 26~28절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고난과 찬양 사이』 고희석 목사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	370장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 시편 102편 1~2, 17~22, 26~28절 >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9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26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1월 10일(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탄식을 영광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문안교회가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을 통해 교우들이 한 마음 되어 주 안에서 흥왕케 되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건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공정도 주님 뜻 안에서 잘 마무리 되게 하시며, 입당 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11일, 향존직 선출을 위한 2차 공동의회와 추수기쁨나눔주일 귀빈초청행사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교역자들, 해외 선교사들을 충만한 은혜로 감싸주시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평강을 주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교회 인근 고시원 화재로 인해 슬퍼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우리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싸매주는 일에 더욱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